

시장

Adolfo Carrión, Jr. (I)

저의 부모님은 이 위대한 도시의 약속을 믿고 푸에르토리코에서 뉴욕으로 이주하셨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뉴욕시는 이제 생활하기 너무 비싼 곳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아직도 우리 청소년들에게 성공하는 데 필수적인 교육을 제공하지 않으며 더는 이전처럼 혁신의 중심지이거나 기업들을 대량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있지도 않습니다. 저는 다섯 개 보로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뉴욕의 약속을 되돌려 주러 시장에 출마했습니다. 저는 뉴욕을 다시 여러분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뉴욕을 살고, 일하며, 가정을 꾸리기에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을 가로막는 특별이익집단이나 정당이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독립적인 지도자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저는 교사, 시의원, 보로장, 오바마 대통령의 백악관 직원 그리고 소규모 사업가로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은 정부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일을 상식적으로 처리하고 더욱 혁신적이며 효과적인 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시 여러분의 도시로 복원된다면 뉴욕시는 노조 간부보다 학부모와 학생이 더 많은 힘을 갖는 곳이 될 것입니다. 높은 세금, 수수료 그리고 벌금으로 사업체들의 성공을 방해하는 대신 그들이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는 곳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뉴욕은 경찰관들이 순찰을 하고 우리 지역사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안전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더 스마트한 도시, 21 세기에 걸맞게 기술을 통해 우리 삶을 더 편리하게 해주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또한 납세자를 존중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열심히 일하는 가족들의 세금을 인상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해주는 뉴욕, 그러니까 저의 부모님께서 쫓아 이루신 삶과 같은 더 나은 삶의 약속이 모두에게 열려있는 곳에 대한 신념 때문에 시장에 출마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십시오. 여러분의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 저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본 홍보물은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선거 비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습니다.